2013년 고분자학회 전무이사로서의 마지막 역할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차년도 운영이사진을 선발하면서 시작된 전무이사로서의 여정은, 수월성, 다양성과 더불어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는 우리 학회 특유의 장점을 바탕으로 회원들 간의 인화와 격려, 조언 등이 있었기에 커다란 과오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주칠 때마다 항상 자상한 격려의 말씀과 협조를 잊지 않으신 회원님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 한 마디로 그 고마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무이사로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이두성 회장님의 세심하면서도 명확한 지시와 조언, 열과 성의를 다한 2013년 운영이사들의 행사 주관 등도 책임이라는 단어보다는 회원들 간의 인화와 격려가 우선한다는 학회 무언의 전통과 헌신적인 노력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역시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두성 회장님께서 특히 역점을 두신 사업으로는 학회상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해서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드리자는 것과 일본, 대만 등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 국제적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신설하여 추계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시상을 할 수 있었고, 추계학술대회에 한하여 연 1회 시상하던 기존의 고분자논문상을 확대해서 춘, 추계 각 2명씩 시상하는 중견학술상을 신설하여 역시 추계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시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중이 큰 학회상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원자가 적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올해만큼은 원활한 심사를 거쳐 무리 없는 시상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한-대만 교류프로그램과 더불어 내년에는 기존의 한-일 교류도 joint symposium으로 확대되어서 젊은 회원들 간의 교류의 장을 더욱 넓히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중국이나 인도와의 교류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LG화학을 비롯한 산업계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학회에 기부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회지는 해당 학회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영문학술지, 그리고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 등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학회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들의 투고논문으로 구성되는 국문 및 영문학술지가 학회의 얼굴로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눈물겹도록 많은 활동을 하신 강호종, 김철희 두 편집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학회의 얼굴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학회지 발전의 토대는 편집위원들의 노력과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논문의 투고가 병행되어야 만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집회의를 함께 하기가 어려워 몇 번밖에 참석하지 못한 저의 불찰을 부위원장이신 김영진, 강영종 두 교수님과 편집위원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너무나도 훌륭하게 메워주셨기에, 이 지면을 통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학회에도 그 여파를 미쳐서, 춘·추계연구논문 발표회를 제외한 나머지 학회 행사의 참가 인원을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20~30% 전후의 감소가 있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였다는 것은 역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뒤편에서는 행사 참가를 독려하고 세부적인 행사 진행을 도맡아 온 이기옥 실장, 김보경 과장, 이여라 대리, 그리고 원미나 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원미나씨가 입사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3+1이 아니라 (3+1)×2의 업무 수행성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 저의 공식적인 마지막 업무는 신구합동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년 허수영 회장님을 모시고 전무이사의 중책을 수행하실 안동준 교수님 이하 신임운영이사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고분자학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총무이사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총무이사로서 지난 1년 간 학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터득하신 안동준 교수님에게는 특별히 인수인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위에서 언급한 분들과 신임 운영이사님들, 그리고 지난 1년간 고락을 함께 한 김재경 전 전무이사, 진형준, 홍성철, 이상천, 이승우 교수님,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구 운영이사들과 술잔을 부딪치며 화합과 격려, 인화를 꾀하고 더불어서 회원을 위한 봉사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전무이사로서 진정한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2013년이 지나가고 2014년 갑오년이 다가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올해의 저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윤호규〉